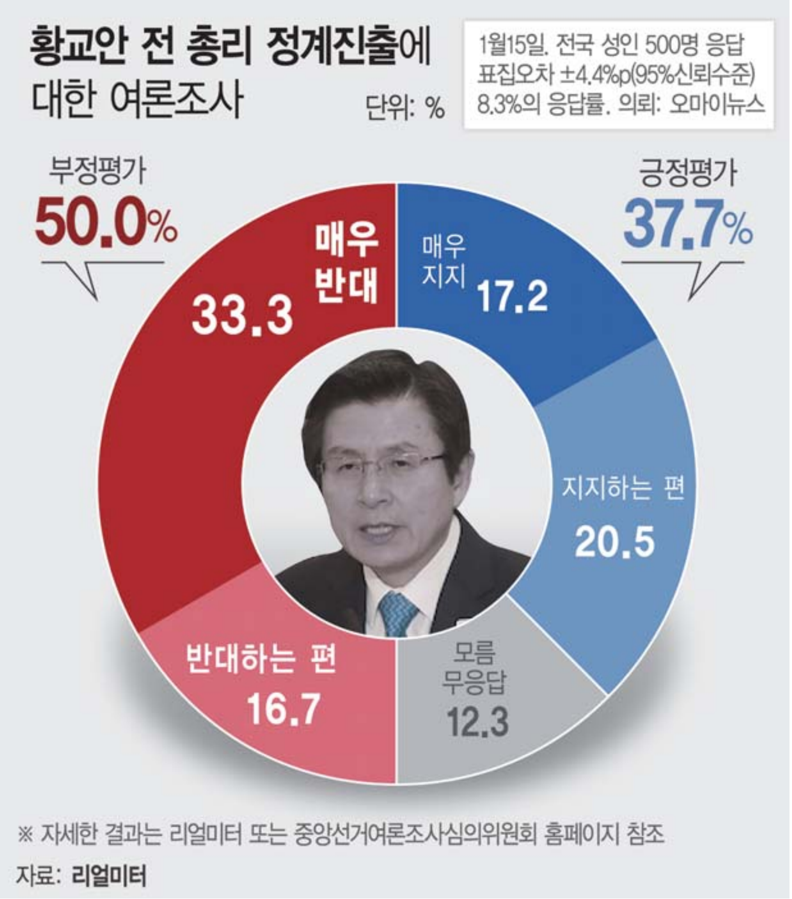
“황교안 정계 진출 여론 반대 50%”



리얼미터 조사결과 지지 37.7% 그쳐

범진보·여권 응답자층 74.2% 반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가운데 황 전 총리 정계진출 반대 여론이 5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황 전 총리의 정계진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0.0%(매우 반대 33.3%, 반대하는 편 16.7%)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지지 응답은 37.7%(매우 지지 17.2%, 지지하는 편 20.5%)로 반대가 지지 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2.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3%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범진보·여권 응답자층은 74.2%가 황 전 총리 정계진출에 반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범보수·야권 응답자층은 80.3%가 지지해 진영별로 결과가 달랐다”고도 했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라(반대 75.3% vs 지지 14.7%)와 대전·세종·충청(51.1% vs 33.6%), 부산·울산·경남(50.3% vs 35.9%), 경기·인천(50.4% vs 38.5%), 40대(56.9% vs 32.1%)와 30대(55.7% vs 31.2%), 20대(52.1% vs 30.2%), 50대(50.7% vs 33.0%), 진보층(71.3% vs 17.9%)과 중도층(53.4% vs 34.7%)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반대 38.2% vs 지지 50.2%)과 60대 이상(38.5% vs 54.9%), 보수층(21.5% vs 71.4%)에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서울(반대 44.3% vs 지지 43.2%)과 무당층(31.9% vs 35.0%)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율은 8.3%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최고위원, 정동영 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정동영 “文정부 성패 갈림길 선거제 등 개혁 선봉 서겠다”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민생경제살리기에 촛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개혁야당으로서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 등 개혁과 민생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2019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 와 있다”며 “너나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평화당은 정부여당에게 정권 실패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민생은 갈수록 어렵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지표는 최악이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정운영에 나날이 허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격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손에 잡히는 변화,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최종 성과물은 법과 제도다.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기필코 해내야하고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야한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확립과 고용·분배 구조 대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자, 친 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 사업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내 180석의 개혁연대를 활용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야당의 소통을 말했다. 또 개혁야당과 집권여당의 개혁연대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화당은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당시 원외 캠페인과 원내 단식농성 등을 통해 여론의 집중을 도모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였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올 2월까지 연장됐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향후 20년 한국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패에 좌우될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은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가 해결 못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정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재벌중심 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낳았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해 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을 ‘개혁야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친재벌 규제개혁 이외에는 어떤 개혁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어차피 어려우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민주당의 안일함으로 절박한 개혁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야당 평화당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황교안 입당에 친박계도 엇갈려…“구심점” vs “무늬만 친박”

홍문종 “황 전 총리는 친박과 인연 없고 어정쩡”

윤상직 “우파진영 대선 지지도 1위…정권 찾아야“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격 입당을 놓고 친박계(親박근혜계)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친박계 중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반면 초재선 의원들은 대체로 황 전 총리의 입당을 반기는 모양새다.

황 전 총리 입당 하루 전인 지난 14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의지가 있는 친박계 의원들은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을 환영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수끼리 제대로 경쟁해보자”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전당대회) 출마 결정을 안했다고 하니 거기다 뭐라고 하겠느냐”며 “싸움이 붙었을 때는 이야기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상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당을 환영한다”면서도 “2·27 전당대회 출마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라고 적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황 전 총리는 친박이 아니다”라며 “내부와의 인연도 없고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석연찮은 일도 많았다. 아마 본인이 무늬만 친박이라는 걸 아니 위치가 어정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 중진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선 황 전 총리의 높은 지지율 탓에 본인들의 전당대회 출마와 승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황 전 총리가 국무총리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친박 의원들과의 교류가 실제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침묵했던 점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즉 공헌한 것 없이 높은 지지율만 믿고 들어와 ‘무혈입성’을 하려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반면 황 전 총리와 내각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지지율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는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환영 의사를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황 전 총리의 입당식에는 추경호, 민경욱 의원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 두 의원은 당일 황 전 총리의 입당을 누구보다 축하했다. 민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나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배석하기도 했다.

당 내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한 윤상직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정종섭 의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한 유민봉 의원 등이 황 전 총리의 입당을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상현 의원도 지난 14일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은 좋은 변화”라며 환영했다.

윤상직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황 전 총리는 지금 보수우파 진영에서 대선 지지도 1위”라며 “이런 점을 잘 살려서 정권을 되찾아왔으면 하는 희망이 크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황 전 총리를 전면에서 지지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다른 전당대회 주자들을 비판하면서 돕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황 전 총리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친박계가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직 이른 감은 있으나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이 다시 한 번 친박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온다.

한편 황 전 총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친박계 중진들도 결국 높은 지지율로 전당대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황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겉모습만 친박이라 할지라도 보수 대선 지지도 1위를 꾸준히 기록한 황 전 총리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